

PREVIEW

손동현 개인전 <소나무>
Donghyun Son solo exhibition <pine tree>

전시기간 | 2014. 10. 24 금 - 11. 13 목
아티스트 토크 | 2014. 11. 1 토 16시



♣ 전시소개

윌링앤딜링에서는 전통 동양화의 기법으로 동시대의 대중문화를 다루는 손동현 작가의 신작들로 구성된, 2011년 이후 3년만의 개인전 'PINE TREE'를 개최한다. 동아시아의 회화사에서 즐겨 그려온 대상인 소나무는 전체 풍경의 구도 속에서 다양한 의미와 상징체계의 매개로서 등장하곤 하는데, 작가는 그러한 '소나무' 혹은 '소나무 그림' 자체를 초상화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는 '인격체로서의 소나무' 혹은 '소나무의 모습을 한 인물'에게 육체와 의복을 주기 위하여 모험/무협/슈퍼 히어로 만화에서 사용되는 인물 설정 방법을 참조하였으며 이러한 설정을 가진 소나무들은 다시 전통 회화의 방식을 거쳐 완성되어 전시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 작품소개

이번 전시에서 주연이 되는 그림들은 <Pine the Great>, <Mister High Fidelity>, <Shaman the Evergreen>, <Master Knotty Needles> 네 점이다. 그림 속 네 명의 인물됨은 동양화에서 소나무 이미지를 사용하는 네 가지 방식에 기반을 두는데, 예를 들어 일월오봉도(작가미상 19세기, 국립고궁박물관)와 같은 그림에서 군주의 위엄을 상징하는 존재, 세한도(김정희, 1844, 손창근 소장)와 같은 그림에서는 탈속과 풍류를 꿈꾸며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모습, 까치호랑이(작가미상,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와 같은 민화에서 생명의 생기와 신성함으로 악귀를 쫓는 영물, 십장생도(작가미상, 18세기, 호암미술관 소장)에서 다른 여러 자연물과 더불어 장수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온 소나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외의 네 점은 작은 족자형식의 작업으로 그 중 하나는 이 전시의 제목인 'PINE TREE', 즉 松이라는 글자에 네 주인공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림들은 채워 넣은 문자도이다. 나머지 세 개의 족자에는 네 주인공들과 함께 구상했던 인물들이 그 모습을 갖추어 참조했던 만화들의 화풍으로 그려져 함께 등장한다.

♣ 인터뷰

· 오랜만의 개인전입니다. 그간의 작업흐름에서 확장 혹은 변화된 점이 있으신가요?

이번 전시에 내보이는 그림들은 주로 초상화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의 작업들처럼 기존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 회화의 전통적인 주제 가운데 인물이 아님에도 인물처럼 다루어져 온 것들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고, 회화사에서 자주 중요하게 등장해온 소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대부분 만화적 소재를 쓰신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참조한 무협/ 모험/ 슈퍼 히어로 만화들에는 자연물과 합일되거나 자연물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인물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게 인물을 빚어내는 방식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소나무 혹은 소나무 그림에 관한 초상을 구상하면서 그 방식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 전통적 재료에 의해 본인의 표현에 대한 한계를 느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전통적 재료와 기법에는 까다로운 면이 많습디다만 그렇기에 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아직 더 도전해 보고픈 여지가 많기에 한계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유재연 개인전 <뚜르비용>
You Jae-yeon solo exhibition <Tourbillon>

전시기간 | 2014. 11. 18 화 - 12. 7 일
퍼포먼스 | 11. 22 토/ 11. 29 토/ 12. 6 토: 13시 - 16시



♣ 전시소개

윌링앤딜링에서는 붓펜을 이용한 드로잉으로 잠재된 내면을 표현하는 유재연 작가의 개인전 'Tourbillon'을 개최한다. 작가는 붓펜으로 무심코 문질러 나타나는 붓 자국, 혹은 얼룩을 기초로 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내면의 형상을 찾아간다.

♣ 작품소개

전시 제목인 'Tourbillon(뚜르비용)' 은 프랑스어로 '회오리바람'이란 뜻인 동시에 기계식 시계 장치가 받는 하중을 상쇄시켜 중력에 의한 오차를 줄여주는 시계의 메커니즘을 뜻한다. 전시기간 중 진행되는 유재연 작가의 현장드로잉 작품 <Gregory Spiral>은 2013년부터 지속해온 프로젝트이다. 'Gregory'는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자본주의에 소외되어 내적으로 변형된 개인의 모습을 암시하고, 원시적이고 파충류적인 자신의 본능과 감정, 혹은 여러 생각들이 조합된 모습을 의미한다. 드로잉은 진행되며 수공으로 중력의 영향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시계의 메커니즘인 뚜르비용과 같이 물리적인 형상들을 벗어난 초현실적 형상들이 회오리처럼 뭉쳐져 하나의 군상을 이룬다.

작가가 보여주는 스스로에 대한 관찰은 외부적으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함으로, 자신의 존재와, 현재의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자신만이 아닌 인간과 사회, 다른 종(種), 지구, 드넓은 우주, 즉 미시세계에서 거시세계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유재연 작가의 드로잉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끈기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을 제시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 어물어물 물결치는 듯한 태양이, 머리위에 작렬한다. 나의 피부는 땀을 구토하듯 토해 내며, 짜증스럽지만 끈질기게 열기를 참아내고 있다. 털이 소복이 온몸을 덮은 참새가, 지랄 같은 태양아래 더위를 느끼지 못하게 마약을 먹었는지 번듯이 돌아다니고 있다. 참을성 많은 참새를 바라보자니 내가 그 털을 다 뽑아버려, 조금이라도 시원하게끔 하고픈 생각이 간절하다. 하필이면 눈을 위로 치켜 올리기만 하면, 눈뜨지도 못하게 할 것이 뭐람, 아무튼 여름은 지옥 뜨거운 열기의 표본일지 모른다.

· 술주정뱅이, 버스안의 고립된 공간, 버스 안 시선을 대중으로 삼았다. 귀속으로 파고드는 음악 속에 주정뱅이의 움직임만이 주목된다. 말없는 버스기사는 조연이 되었다. 어느 샌가 주연이 없어졌다. 짙막한 연극에, 허무한 끝맺음, 그것이 우리네 인생일지 모른다.

· 물질에 영혼이 깃들다. 나 같은 무신론자에게 영혼이란 당치 않은 소리 같지만, 웬지 맹목적인 신념일거 같은 것에 동조하기도 한다. 굳이 영혼이라 부르기 뭐하다 할지라도, 그 정신이 깃들은 부정치 못할 것이다. 이제껏 무수히 죽어간 사람들과 현존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절실하게 내뿜었던 정신은, 돌고 도는 윤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입김을 내뿜고 있지 않은가. 그럼 과연 내가 내뿜는 입김은 어떠한가? 아직은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내게는 탐구해가는 과정 속에 내뿜는 미약한 숨결일 것이다. 그것이 유리창에 하얀 서리가 지게 하는 입김일 수 있도록.....

| REVIEW with PHOTOS |

오인환 개인전 <사각지대 찾기>

Inhwan oh solo exhibition <Looking Out for Blind Spots>

2014. 9. 4 - 9. 24



1 | 아티스트 토크, 9월 17일

2 | 전시장 전경, 갤러리 팩토리

3 | 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추미림 개인전 <POI (Point of Interest)>

Chu Mirim solo exhibition <POI (Point of Interest)>

2014. 10. 1 - 10. 21



1 | 오프닝 리셉션 장면, 10월 1일



2 | 전시장 전경,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3 | 아티스트 토크, 10월 16일

| EPILOGUE |

박주원, 김세훈 전 스텝이 근무중인 광주 비엔날레를 즐기는 윌링앤딜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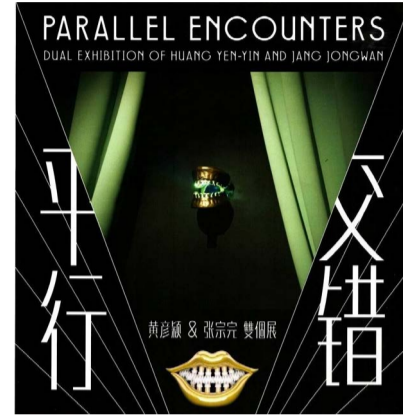
| W&D NEWS |

이신애 코디네이터는 한강진역 근처에 새 작업실을 얻었다. 그녀의 친구 네이든 잭슨은 한국에 돌아와 위스키 브랜드 JAMESON에 취직하여 갤러리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갤러리에서 4분 거리에 집을 구해 이웃이 되었다.

한황수 인턴은 공모전에 당선되어 전시 <Un seul grain de riz>에 참여한다. 전시는 갤러리 메타노이아(Galerie Metanoia)에서 12.19~01.10까지 진행된다. 그는 파리행 티켓을 구매했으나 머물 곳을 몰색중이다.

박윤삼 인턴은 주변의 의견을 반영하여 머리카락을 잘랐으나 여전히 장발이다. 특별한 소식이 없다.

| SHORT-CUT NEWS |



장종완 작가가 대만 타이페이 Art Issue Projects에서 대만 작가 Huang Yen-ying과 전시 <Parallel Encounters>를 열었습니다.

박경률 작가의 개인전 <3+tic>이 10.10~11.9까지 커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박진우 작가는 서울 시립 북서울미술관 기획전 <12간지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꼬리와 거울로 된 시리즈 총 7점을 출품하였습니다. 기간은 2015.02.08까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중인 <사물학-디자인과 예술>은 연장되었습니다. 전시는 2014. 06. 05~ 2015. 01.11 (총 98일 연장, 휴관일 포함)까지입니다. 전시 작품은 '헤어리 스킨레핑 2014'이며, 2013년에 윌링앤딜링에서 진행된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업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심아빈 작가는 청년미술프로젝트 <Sugar Apple Daegu>(전시기획: 이수균)에 참여합니다. 위치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이며 전시는 11.11~11.16까지입니다.



최승훈+박선민 작가가 미디어시터스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11.23까지입니다.

김정은 작가는 최근 안내방송 형식의 작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무분별하게 섞어쓰는 현상에 대해 질문하는 이 작업은 1분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입니다. 작가는 현재 이를 '방송'할 적당한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작가들의 행방



신기운 작가는 부산비엔날레 <세상속에 거주하기> 비엔날레 아카이브전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11.22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사무실을 계약하여 11월, 6명의 공동운동자로 출발하는 예술인의,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을 위한 집단이 시작됩니다. 주소는 세운상가 가동 바421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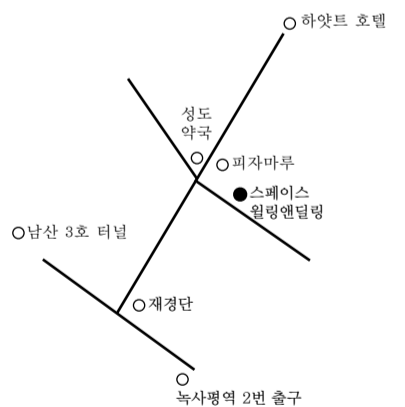
추미림 작가는 갤러리 0914에서 하상욱, 은희경등 시인, 소설가와와의 협업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11.30일까지입니다.



박선민 작가가 참여한 부정기 간행물 Versus 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윤병주 작가가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에 소개됩니다.

오시는 길



주소

140-857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225-67 B1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찬: 엠솔루트 보드카
발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김인선, 이신애, 박윤삼, 한황수
발행일: 2014년 10월 24일